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

세종특별자치시의회

보도자료

제공일자	2026. 11. 26.(목)	**사진 · 영상**	사진(O), 영상(X)
보도일자	2026년 11월 26일(목)부터		
제 공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	**유인호**	☎ 044-300-7010

[2027 본예산안 심사] 세종시의회 유인호 의원,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제, 시범 운영 전인데 내년 12월 사업 예산부터?"

–25일 교육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운영계획과 경비 산출 근거 마련 주문–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유인호 의원(보람동,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제110회 정례회 교육안전위원회 제6차 회의 교육청 소관 2027년도 본예산 심사 에서 진로교육원이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제 시범사업을 시작도 하기 전에 내년도 본사업 예산을 편성한 근거를 따져 물었다.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제는 수능을 마친 고3 학생에게 지역 공공기관의 직무를 체험할 기회를 주려는 교육감 공약사업이다. 진로교육원은 올해 12월 첫 시범 운영을 앞두고, 내년 본사업 예산으로 1,454만원을 편성했다.

유인호 의원은 먼저 "올해 시범사업 자체를 시작도 하지 않았는데 내년도 본예산안이 제출됐다"고 지적하며, 본사업 규모와 경비를 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물었다.

이어 “참여기관, 학생 수, 운영기간 등 사업규모가 미정인데 경비별 예산만 제시된 자료로는 예산의 적정성과 필요성을 판단하기 어렵다”며,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으려면 첫 시범 운영부터 학생들이 어떤 경험을 얻었고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내년도 사업이 12월에 예정된 만큼 올해 시범 운영의 성과와 개선점을 충분히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년도 사업계획과 필요 예산을 정하는 것이 순서라는 심사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유 의원은 초·중학교 진로전환기 체험 지원, 특수학급 운영, 진로·직업교육 및 돌봄 지원 예산이 줄어드는 데 대해, 학생들의 진로체험 기회가 줄어들거나 필요한 교육·돌봄 지원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학교 현장의 운영 여건을 세심히 살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특수교육 지원은 예산 감액으로 현장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지 계수조정 전까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